

평화드림포럼

평화드림 5만리 유럽 여정기 (참여후기)

감리교신학대학교 4학년 오가원

1. 여정의 첫 시작

2023년 1월 27일, 평화드림 5만리의 첫 모임이 시작되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다. 함께 여정을 떠나기로 한 친구마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하차를 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평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혼자라면 두려워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면 도전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셨다. 여정을 떠나기 전, 사전모임의 시간은 나에게 있어 그저 기록에 남길 형식적 모임의 시간이라는 느낌이 더 컸다. 그러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반년에 가까운 준비기간이 나에게 있어 마음을 다잡고 13일의 여정을 버틸 수 있게 해 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2. 두 얼굴의 유럽

오랜 비행 끝에 마주한 첫 유럽인 네덜란드는 예쁜 건물과 탁 트인 평지, 맑은 날씨 등 매우 아름다웠다.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건강하고 평온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유럽 방문 첫날에는 소매치기, 석회물, 비싼 물가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과장되어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침 조식 시간, 함께 여정을 온 감독님 부부의 가방이 도난당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겪으며 유럽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깨닫게 되었다. (만일 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정 내내 가방을 챙기는 것에 소홀해졌을지도 모른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학생들이 아닌 본인들의 가방이 도난당한 것에 감사하시던 감독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았다. 여정 출정식 때, 감독님께서 항상 감사하면서 움직이자는 말씀을 하신 것을 직접 실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란 무엇인가,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이후 나 역시 남은 여정의 기간, 몸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감사로 가득 채우며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소매치기 사건 이후에는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유럽 사회의 선과 악은 여정 내내 살펴볼 수 있었다. 유럽 사회의 선 가운데 가장 좋다고 느낀 부분은 거리에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 등을 보면서 유럽의 장애인 복지가 확실히 좋다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전장연(전국장애인철페연대)의 시위가 존재하고, 시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어 발생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불화, 편의·복지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 등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더 아름다워 보였으며, 모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느낄 수 있었다. 반대로 유럽의 자유와 인권의 정도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생각되는 악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바로 동성애와 마약 합법에 대한 부분이

었다. 길거리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걸며 무의식적으로 동성애에 노출되게 하며, 대마초 모양이 그려진 간판이 거리마다 보이는 것은 매우 좋지 않게 느껴졌다. 물론 마약의 경우, 합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에 편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길거리마다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마약을 합법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부분이라 본다. 선과 악의 공존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난다. 그러나 유럽 사회에서 보인 선과 악은 다른 곳보다 더 적나라하고 뚜렷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진국이 되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유럽과 같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보다는 선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독교인으로서 노력해야 함을 느꼈다.

3. 퍼포먼스와 평화 서명

평화드림 5만리의 여정에서의 핵심이 되는 활동 중 하나는 길거리 퍼포먼스(버스킹)와 평화지지 서명받기라고 생각한다. 사실, 첫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잘 선보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길거리 찬양이 처음이기도 하였고, 퍼포먼스 팀의 일원으로서 악기(멜로디언)를 다루야 했기에 연주 도중에 실수하여 공연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다. 다행인지 아닌지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사람들이 찬양하는 목소리에 멜로디언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응원과 격려에 부담감도 많이 내려놓으며 처음을 제외한 나머지 퍼포먼스는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가 찬양하고 즐기는 모습을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연주 소리에 이끌려 온 사람, 평화지지에 대해 흥미를 갖고 찾아온 사람, 공연을 함께 즐기기 위해 찾아온 사람 등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에 깊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찬양을 듣고 찾아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밝히며 함께 우크라이나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 장면은 내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일 것이다. 비록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의 아픔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 여전히 분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들이 가진 슬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으며,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국적, 인종,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그저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4.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배움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드림 5만리를 준비한만큼 직접 독일에 방문하여 독일통일과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뜻깊게 느껴졌다. 우리와 환경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진 독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독일통일에 있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현상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서로 다르기에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통일에 관하여 여당, 야당 모두가 한결같이 희망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북한 경제적 차이에 대해서도 서독, 동독이 먼저 겪은 문제를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독일과 유대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유럽 곳곳마다 나치와 유대인의 역사가 스며있는 것을 보았다. 역사적 흔적이 남은 건물을 남겨둔 채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며 반성하는 독일인의 모습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느낄 수 있었다. 반대로 남겨진 기록조차 왜곡하며 부인하는 일본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분노도 느끼게 되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방문하면서는 유대인의 삶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슬픈 삶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하나의 가방 속에 넣은 채 끝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들어온 곳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과거 일본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우리나라 선조들도 얼마나 무섭고 억울했을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전쟁과 핍박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리고 독일, 일본과 같이 승리자의 입장이었던 국가 역시 본인의 후대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일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의 방법은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사랑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준 열사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역사책에서 짧게 배웠던 헤이그 특사였기에 그들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직접 비행기를 타면서 네덜란드가 얼마나 먼 국가인지 깨닫게 되었으며, 언어, 날씨, 환경 모든 것이 다른 가운데 그들의 여정이 사명감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지 끊임없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일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적 건물과 역사적 인물들의 삶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존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분단이 길어질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관심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공간에 방문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호기심을 심어주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현재 남북한이 유일한 분단국가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역시 분단국가였다. 독일통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끝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 끝은 분명 기독교적인 평화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먼저 준비된 자로 있기 위하여 평화드림 포럼과 같은 기관, 평화드림 5만리와 같은 행사, 통일교육과 같은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5. 다시 한국으로

13일의 여정을 끝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사전모임을 하며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했던 나의 모습이 무색하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평화드림 5만리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떠난 여정이었지만 평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하나가 돼서 돌아왔음을 나의 삶을 통해 직접 느끼고 있다. 평화드림 5만리는 내게 있어 인종, 나이, 성격, 성별 상관없이 '평화'와 같은 단 하나의 공통점만 있다면 서로 하나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정말 뜻깊은 기회이자 경험이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평화

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었다. 전 세계가 하나님 한 분으로 평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